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의 정치갈등 극복의 리더십 연구

전황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후 종족갈등을 막기 위해 말레이계 국민이 주축이 된 말레이민족연합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와 중국계, 인도계 등 타종족간 집권연합의 국민전선(NF: National Front) 체제에 의해 정국안정을 달성해왔다. 1969년 중국계 주민들에 대한 말레이계 원주민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으나 그후 말레이계 국민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우대정책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종족간 화합을 누려왔다.

1981년부터 집권한 마하티르 총리는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수출진흥 정책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UMNO의 권위주의체제와 국민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장기집권과 정치안정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후계를 둘러싼 당내갈등과 외환위기의 해결책을 놓고 마하티르와 안와르 부총리간 대립이 악화되자 결국 마하티르는 1998년 9월 안와르를 부총리에서 해임한 후 구속하였다. 마하티르는 안와르에 대한 강경한 대처와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안와르 세력을 제거하였고, 1998년 후반부터 경제회복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마하티르에 대한 비판정서는 약화되었다. 특히 1999년 4월에 실시된 사바주 선거의 승리와 1999년 11월에 실시된 조기총선의 선전은 그의 견고한 정치기반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마하티르는 총선승리와 국민지지로 당분간 별다른 도전 없이 자신의 정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마하티르의 서방에 대한 비난공세와 민족주의 열기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반정부시위가 종족폭동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중국계 국민들의 묵시적 지지, UMNO와 정부내의 기반강화, 고정환율제와 신용공급 확대에 의한 경제회복, 순종적인 국민성 등이 마하티르의 정치갈등을 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I. 서론

동남아 정치의 공통적 특성은 권력승계나 정치지도자의 교체가 제도화된 과정보다 암살·쿠데타·궁정혁명 등의 비합법적 폭력에 의해 결정되는 내적폭력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86년 민중혁명에 의한 마르코스의 실각과 코라손 아퀴노의 집권, 2001년 민중시위에 의한 에스트라다 정부의 퇴진과 아로요

의 집권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5년 군부쿠데타와 수카르노의 실각, 1998년 민중시위로 인한 수하르트의 퇴진과 와히드의 집권을 들 수 있다. 또 태국의 수많은 군사쿠데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예외적으로 제도화된 과정에 의해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는 독립 후 리완유-고척동체제로 평화롭게 권력이 이양되었고, 말레이시아도 1957년 독립 후 3차례의 권력승계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집권당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40여 년 동안 말레이시아는 빈곤의 감소와 사회 이동성의 상승, 교육수준의 향상 등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민주선거를 통해 정부부문에의 민간참여가 가능하였고, 반대자의 합법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다. 또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었고, 특히 여성의 권리는 다른 이슬람 사회보다 광범위하게 신장되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가 헌정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동남아의 민주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은 민주헌정의 역사가 짧고, 다종족·다종교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홍석준, 1999: 37).

말레이시아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말레이계 국민들이 주축이 된 말레이민족연합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현재까지 장기집권하고 있다. 1969년 말레이계와 중국계 주민의 갈등으로 대규모 종족폭동이 일어나자 부미뿌트라(Bumiputra)라는 말레이계 주민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원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켰다.¹⁾ 또 종족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체도로써 종족집단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국민전선(NF: National Front) 체제 내에서 지도자들간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 정치갈등을 해소해왔다.

1981년부터 집권한 마하티르(M. Mahathir) 총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 자본의 유치와 수출진흥의 공업화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장기집권을 해왔다. 그는 동방정책(Look East)을 전개하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정부의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양승윤, 1998: 5).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마하티르 총리와 안와르(Anwar) 부총리간의 권력갈등이 심화되었고, 외환위기의 해결을 둘러싼 정책대립 끝에 결국 안와르는 1998년 9월 20일 부패와 동성애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기에 반발한 학생과 시민들이 마하티르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여 혼란에 빠졌다. 마하티르는 안와르 지지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서방에 대한 비판적인 말

1)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는 영국의 식민통치에 기인한다. 영국은 말레이계에게 농업이나 어업 등 전통적인 경제활동에 종사시켰고, 반면 대규모의 중국이민을 받아들여 이들이 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인도계에게는 고무와 야자 등 상업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독립 후에도 이러한 종족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레이 이슬람 사회를 동원하여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과 경제회복에 힘입어 반(反)마하티르 정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 4월에 실시된 사바(Sabah)주의 지방선거와 11월의 총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집권여당이 승리하여 경제 및 정치안정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적 안정을 누려온 말레이시아가 1990년대 후반 마하티르와 안와르 간의 갈등 및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초래한 정국혼란의 원인과 이를 극복한 마하티르 리더십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하티르는 안와르를 후계자로 육성하면서 왜 그를 제거했는가? 외환위기의 해결을 둘러싼 마하티르와 안와르 간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 경제위기와 정국혼란에도 불구하고 마하티르가 극복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1997년-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마하티르의 정치위기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UMNO와 마하티르의 리더십

1. UMNO와 NF체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의 11개 주와 사바·사라왁(Sarawak) 등 인도네시아령 칼리만탄 북부 2개 주 등 총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고통치자는 국왕이며 여타의 입헌군주국의 군주보다는 광범위한 권한이 있으나, 실질적인 통치권은 총리에게 있다. 말레이시아의 정당은 사바주에 16개, 사라왁주에 5개 등 지역정당 21개를 포함해 40여 개가 난립해 있으며, 정국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하였다. 대다수의 정당들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종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종족간의 제휴 또는 대립이 말레이시아 정당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77).

말레이시아는 독립이래 상호타협과 공존의 정치문화 속에서 세 차례의 정권교체를 큰 위기 없이 합법적으로 달성하였다.²⁾ 집권연합의 중심정당인 UMNO는 1946년 결성 후 인종갈등 해소와 경제발전에 주력하였다. 집권연합의 국민전선(NF)은 1957년 독립 후 말레이계 정당인 UMNO, 중국계 정당인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라만(Abdul Rahman)이 초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1969년 대규모 종족폭동의 여파로 1970년 7월 라만 총리가 사임하고 라자크(Tun Razak) 부총리가 2대 총리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라자크 총리가 1976년 1월 사망하여 후세인(Hussein Onn) 부총리가 3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후세인 총리는 심장병으로 1981년 7월 은퇴하고 부총리인 마하티르(M. Mahathir)가 4대 총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장기집권하고 있다.

중국인연합(MCA: Malaysia Chinese Association), 인도계 정당인 말레이시아인도인의회(MIC: Malaysia Indian Congress)가 서로 느슨한 동맹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69년 5월 종족폭동을 계기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종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신경제정책(NEP)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말레이시아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74년 6월에 9개 정당(UMNO, MIC, MOC, PAS, PPP, Gerakan, SUPP, PBB, SAP)으로 구성되는 말레이계 정당 및 다수의 비말레이계 정당을 포함하는 NF체제가 출범하였다. NF체제 내에서 UMNO는 집권연합의 최다수당으로 패권정당의 지위를 가지며, 기타정당은 UMNO의 집권을 보장해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한계정당의 위치에 있다(정영국, 1995: 9).

〈표 1〉 말레이시아 의회의 의석분포

정 당	1974년	1978년	1982년	1986년	1990년	1995년
집권연합(NF)	134	131	132	148	127	162
UMNO				83	71	88
말레이시아 중국인연합(MCA)				17	18	30
말레이시아 인도인의회(MIC)				6	6	7
기타정당(11개)				42	32	37
야당				29	53	30
민주행동당(DAP)		16	9	24	20	9
말레이시아 이슬람당 (PAS)		5	5	1	7	7
기타	20	2	8	4	26	14
합계	154	154	154	177	180	192

자료: EIU Country Profile 1998-99 Malaysia, p.8.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NF체제는 출범 후 7차례의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해 왔고, 참여정당은 총선을 전후해 수시로 변동해 왔다. 1989년 10월 스망앗(Semangat 46: '1946년 정신') 창당 및 야권연합(APU: Angkatan Perpaduan Umman) 출범 후 NF는 현재 14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슬람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이를 경계하며 중국계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이 있다. 그러나 야권의 연합체에 이르기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기본노선의 차이 등으로 인해 NF와 같은 반영구적인 조직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78-79).

집권 UMNO는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으로 선거에서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적극 홍보하여 말레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 직접 기업들을 소유하면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UMNO의 기반인 농촌지역에 선거구가 많이 배정되어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태국이나 필리핀 정당들과 비교할 때 UMNO는 고도로 제도화된 정당이며 그 자체가 막강한 통치기구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역대 총리들은 UMNO의 총재직을 통하여 취임하였다. 반면, 야당들은 분열되었고, 조직 및 자금의 열세로 UMNO가 항상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FEER, 99/05/27: 18).

말레이시아에서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인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된 다종족 연방국가임을 고려할 때 UMNO 내에서의 총리의 교체가 세 차례에 걸쳐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치제도화의 측면에서 볼 때 높이 평가할 만 하다.

2. 마하티르 리더십의 특징

마하티르는 1981년 7월 16일 총리에 취임하였는데, 제2세대 민족주의자로 앞의 총리들과는 달리 영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교육받았고, 전통 엘리트 가문이 아닌 중산층 출신이다. 그의 집권과 더불어 말레이시아의 정치지도층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개혁지향적인 보다 젊은층이 상층부에 기용되었고, 이와 더불어 관료사회의 부패와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또 정부와 UMNO 내부의 숙청작업이 전개되었다. 그는 취임 후 일본 및 한국의 경제발전을 모방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전개하였는데 일본을 투자, 원조 및 기술의 원천국가로 인식하였고, 국내의 민족주의 고양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강화하였다.

마하티르는 1983년의 헌정위기³⁾, 1987년의 당내분열⁴⁾ 1989년의 심장병수술

3) 22개조에 달하는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함으로서 표면화되었는데 개정안이 사전준비와 협의과정이 불충분하다는 비판과 국왕과 술탄들의 국정참여 역할을 크게 제한하여 심한 반발을 낳았다. 총리의 지위를 격상시키자 국왕은 술탄들의 반대를 의식하여 개정 헌법안의 재가를 거부하였다. 1983년 12월까지 위기가 계속되었고 정부와 반대세력의 격돌로 입헌주의와 의회제도의 위기감이 팽배하였으나, 1984년 1월 마하티르 진영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통과되었다.

4) 마하티르의 라이벌인 라잘레이 상공장관 지지자들은 UMNO 지도부선거에서 마하티르가 761대 718표로 43표 차로 신승하자 마하티르를 권력남용, 권위주의 통치, 미숙한 경제운영 및 부정부패로 비난하였고, 마하티르는 내각과 UMNO 지도부에서 라잘레이 반대파를 축출하면서, 국내안정법을 발동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하고, 야당성향의 세 신문을 폐간하는 등 강경 대처로 맞섰다. 라잘레이파는 스망앗46이라는 신당

등을 극복하였다. 또 1980년대 후반이후의 경제발전으로 1990년 선거와 1995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마하티르 정치의 특징은 먼저 이슬람운동의 강화, 민족주의 고취,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서방에 대한 비난공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술수와 정책을 사용하였다.

첫째, 마하티르는 말레이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슬람적 가치를 적극 권장하였다. 1982년 말 엄격한 이슬람 원칙 하에서 운영되는 이슬람은행(Bank Islam Malaysia)을 창설하였고, 1983년에는 국제이슬람대학교(International Islam University)를 설립하였으며, 이슬람 율법의 준수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치들도 추가하였다. 또 말레이시아이슬람운동(ABIM: Angkatan Belia Islam Malaysia) 지도자인 안와르를 UMNO에 가입시켜 후계자로 육성하였다. 한편, 1997년 후반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경제위기에 대한 문화적 대응의 한 방법으로 이슬람적 가치와 규범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올라마(ulama)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각급 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였다. 이렇게 마하티르 정부가 이슬람적 가치와 규범을 강조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한 정신적 일체감과 종교적 유대를 강화하는 주요기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이슬람을 통한 단결은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홍석준, 1999: 50-51).

둘째,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잠재적 적대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1987년 당내투쟁에서 반대파들을 UMNO와 정부에서 추방하고 106명을 구속하면서 법정투쟁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UMNO의 지배권을 사수해냈다. 또 사무적인 착오와 준비 소홀로 법원이 UMNO가 불법단체라는 반대파의 청원을 받아들이자 투쟁 후 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냈다. 1998년 안와르와 반목이 심화되자 안와르를 구속시켰고, UMNO와 언론에서 안와르 지지자들을 추방하였다.

셋째, 종족간의 화합과 사회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슬람원리주의에 대한 비난공세를 전개하였다.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가 다종족사회로 민감한 문제를 부추길 경우 종족간 충돌로 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자유와 정치적 비판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그의 말레이계 우대정책은 말레이계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와 교육, 공무원 채용 등 전반적인 지위격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경제의 중추를 담당해온 중국계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⁵⁾

을 결성하고, 야당들과 연합하여 APU라는 대안정당을 창설하였다.

5) 이것이 중국계 주민들의 최대불만이 되어왔고, 마하티르의 Vision 2020을 빈정거

넷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 등 자신의 치적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였다. 그는 외환위기 후 경제회복과 독자적인 외환위기 해결노력을 선전하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치적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키고 정통성을 강화하였다(*Time*, 99/02/08: 21). 또 모든 국민에게 말레이시아는 할 수 있다는 정신 *Malaysia Boleh* ('Malaysia Can')을 고취시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1981년 이후 19년 간의 총리재임 중 최대업적은 국민의 관심사를 미래로 집중시켜 국민들에게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한다는 걸 깨닫게 했다고 자찬하였다(Mahathir, 1999: 370). 마하티르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9년 6월 21일 수도를 쿠알라룸푸르에서 뿌트라자야(Putra Jaya)로 이전하였다. 총 600억 링기트화(6조 3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1998년에 건설한 신공항과 쿠알라룸푸르 사이에 위치한 뿌트라자야를 중심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인 멀티미디어 슈퍼허브계획에 따라 신도시건설을 강행하였다.

다섯째, 서방세계에 대한 비난공세와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였다. 마하티르의 집권이후 미국, 영국의 언론, 호주정부, 러시아, 유대인, 헤지펀드의 조지 소로스, IMF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마하티르의 전투적 스타일은 젊은 시절 영국의 식민통치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하였다. 그는 1981년 총리에 취임한 후 미국과 중국을 제국주의 국가라 비난하였고, 러시아는 아직 자유민주주의를 할 자세가 안돼 있으며, 호주를 죄수의 후예라고 비판하면서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 일탈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⁶⁾(*Newsweek*, 97/09/01: 15). 1998년 9월 20일 홍콩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총회에서 마하티르는 “외환거래는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며 비도덕적이고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국제투자가까지 공격하였다. 마하티르는 후에 “아시아 통화위기는 이슬람국가의 발전과 화교자본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라고 발언했다가 나중에 부인하였다. 이는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의 신랄한 언행은 외국투자가에 대한 개방 등 실용적 정책에 의해 균형이 보완되었다(*FEER*, 98/12/10: 21). 그리고 서방의 민주주의와 인권주장을 아시아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대항해 아시아적 가치를 설파하면서 서방의 보편적 가치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⁷⁾ 또 미국 및 호주 주도의 아시아

리는 표현으로 Vision 두아(2) 꼬송(0) 두아(2) 꼬송(0) 이라고 부르는데 두아 꼬송은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6) 루퍼트 머독같은 언론재벌을 아시아인의 정신을 위성방송을 통해 오염시키고 있다고 공격하였고, 조지 소로소가 미얀마와 캄보디아같은 독재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이기로 결정한 아세안을 징벌하기 위해 태국의 바트화를 공격했다며 사악한 투기꾼이라고 비난하였다.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대항하여 1991년 ASEAN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를 제안하였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타국들의 소극적 반응으로 실패하였다(*EIU Country Profile*, 1998-99: 12). 사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비난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부에 말레이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것은 마하티르에게 큰 정치적 이익이 되었다. 마하티르는 반미주의와 민족주의의 분위기를 경제위기로 동요되었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시 확보하는 호기로 삼았다. 애국심 고취운동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홍석준, 1999: 49).

여섯째, 서방에 대한 비판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마하티르는 미국과 IMF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설립에 적극 찬성하였고, 1998년 10월의 일본방문에서 “헤지펀드가 아시아의 돈을 강탈해갔다”고 공격하면서 “엔(円)이 국제통화가 된다면 달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엔 동맹 구상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마하티르의 호의적인 태도는 그의 자서전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안주하던 말레이시아인들에게 1941년 일본의 승리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어학교에 다니던 나는 일본인들에 큰 반감이 없었다. 일본의 행위가 침략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을 유럽인들의 식민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으며, 일본 통치기간중의 엄격한 질서유지 확립에 감명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말레이시아가 추진한 적극적인 해외투자의 유치정책에서 전자산업 등 일본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고도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식하였다(Mahathir, 1999: 21).

마하티르는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부미뿌뜨라 정책이라는 ‘당근’을, 다른 한편으로는 8만의 경찰과 국내안전법(ISA: Internal Security Act) 등의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집권해왔다. 중국계 국민들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열세인 말레이계 국민들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지지를 받았다. 또 종족들과의 융화를 중시하고 온건·실용·개방노선을 취하는 절묘한 통치기술로 중국계와 인도계 국민의 지지까지 확보하였다.

7) 아시아적 가치는 공동체 또는 가족중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 서양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과 다르다. 아시아적 가치는 사회안정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권한(authority)을 존중하며 이러한 권력과 안정이 없으면 질서는 없다. 그렇다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를 신봉하지만 민주국가의 시민들도 정부를 존중하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간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III. 마하티르와 안와르 간의 정치갈등

1.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갈등

안와르는 1974년 가난한 농민을 경시하는 정부에 대한 시위를 주동하다가 구속되어 2년 간 투옥되었다. 그 후 이슬람청년단체인 ABIM의 의장을 지내면서 민주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82년 당시 마하티르 총리는 젊은 말레이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안와르에게 UMNO 가입을 권유하였다. 안와르는 현실권력을 통해 이슬람의 이상을 실현할 때라고 마하티르 정부에 합류하였다. 안와르는 1982년 총선직후 수상실 차관에, 1983년에는 청년 UMNO 회장, 곧이어 문화·청년·체육부장관, 농림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거쳐 1993년 부총리에 임명되었고, 1987년에는 UMNO의 부총재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UMNO 내에서 안와르는 청년국장을 지내면서 소장세력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기존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는 아웃사이더로 간주되었다. 그는 마하티르 총리의 도움을 받아 많은 원로 정치인들을 제치고 고속 승진하면서 많은 직을 만들었다. 그는 시스템의 변화를 원했지만 마하티르가 정적들과 권력투쟁을 벌일 때 침묵을 지켰다. 1980년대 몇몇 대법원판사들을 해임하는 사법파동에서도 침묵을 지켰고, 1987년 마하티르가 106명의 반대자들을 구속하는 UMNO 내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때 만약 자신의 목소리를 냈더라면 벌써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그의 측근들은 주장하고있다(*Newsweek*, 98/12/28: 34-35).

안와르는 1993년 부총리에 취임한 후 마하티르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작성한 연설원고를 통해 그의 이상을 조심스럽게 설교하였다. 시민사회, 보편적 가치, 자유 등이 안와르의 메시지에 함축되었고, 아시아 르네상스라는 저서를 통해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UMNO와 정부내의 노장파들과 마하티르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웃들에게도 그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1997년 캄보디아에서 훈센의 쿠데타가 발생하자 안와르는 ASEAN에 향후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적인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금지한 ASEAN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전이어서 마하티르의 반감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마하티르가 주장하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항해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고, 1997년 7월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유사한 국제봉사단의 창설을 주도하였는데 1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교사, 의료직, 사회봉사자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Newsweek*, 97/09/01: 18).

마하티르는 1995년 말 당대회에서 새 총재의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조기퇴진을 시사하여 안와르측은 1999년 총선 전에 안와르에게 총재직이 이양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96년부터 마하티르와 안와르간 본격적인 암투가 시작

되었다. 안와르는 마하티르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마하티르는 안와르가 그의 직책을 계승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다. 1996년 전반기 안와르의 지지자인 2명의 현직 지방장관, 케다주의 오스만 아로프와 사바주의 살레 사이드의 교체를 놓고 양측이 암투를 벌였으나 마하티르가 승리하였다(Chin, 1997: 181).

마하티르는 1996년 10월의 UMNO 총회에서 금권선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였다. 또 잠재적인 당직후보는 특별UMNO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마하티르에게 유리하고 안와르측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UMNO 총회에서 16명의 대의원과 대회참여를 거부당하고 7명의 안와르측 의원들이 금권정치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최고간부위원회 입후보를 거부당했다. 한편, 마하티르의 측근이며 안와르와 사이가 나쁜 압둘라 바다위가 3명의 부총재중 한 명으로 경선을 통해 당선되었다.⁸⁾ 결국 UMNO당대회는 마하티르의 승리로 귀착되었다. 기반을 강화한 마하티르는 1996년 12월 8년간 UMNO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모하마드 라마트를 마하티르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바루딘 친으로 교체하였다(James Chin, 1997: 187).

1997년 후반의 외환위기로 인해 양자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는데 마하티르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규모가 적은 외채와 경상적자를 정치기구들과 대중적 지지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안와르는 마하티르의 신용공급 확대를 반대하였고, 경영이 악화된 마하티르의 정실기업들이 파산하도록 금융긴축을 지지하였다. 1997년 12월 안와르는 링기트화를 안정시키고 국제투자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IMF식의 긴축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지출의 18% 감축, 대출감소, 은행감독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 3월까지 39개 금융사와 35개의 시중은행을 통폐합하는 금융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8년 1월 링기트화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달러 당 사상최저의 4.88까지 하락하였고, 고금리와 주가폭락으로 빚더미의 재벌기업들이 파산직전에 빠졌다. 안와르는 결코 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지만, 마하티르는 이러한 긴축상태에서는 우량기업까지 도산할 것이라 반대하였다(Greg Felker, 1999: 48-49).

그리고 안와르는 마하티르가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속 수행될 경우 정부지출 증대로 링기트화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사업연기를 발표하여 마하티르의 분노를 샀다. 마하티르는 창의성과 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하이테크 기업들을 위한 150억 달러에 달하는 멀티미디어 슈

8) 바다위는 1984년에서 1993년까지 부총재 직을 3번 연임했으나 1993년 안와르측에 의해 축출되었었고, 다른 2명의 부총재는 현직인 나지브 라작크와 무하마드 타이브이다. 나지브 교육장관은 원래 안와르 편이었으나 현재에는 마하티르 측으로 변신하였고, 타이브 부총재는 안와르에게 더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바다위에게 패배한 현직 부총재이며 체육장관인 무히딘 야신은 안와르 추종자이다.

퍼회랑의 건설, 사라왁 지역의 홍수조절을 위한 55억 달러에 달하는 바쿰댐 건설, 35억 달러에 달하는 쿠알라룸푸르 남부지역에 대한 신공항건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왔다. 안와르의 이러한 중단조치는 링기트화와 주가의 급락, 기업의 연쇄도산, 대량실업사태 등 일련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 위기극복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트의 퇴진은 안와르의 지지자들을 고무시켰다. 이들은 부패, 정실주의, 연고주의를 타파하자는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와르는 6월 “우리가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여 인도네시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퇴진운동에 대해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자신의 퇴진을 명백히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물러나지 않겠다”고 은퇴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결국 마하티르에게 안와르의 권력승계는 마하티르 지지기업의 도산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비전 말레이시아 구호의 파괴를 의미하였고, 그는 안와르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였다(Asiaweek, 98/03/27).

마하티르의 외환위기 대처노력은 한국과 태국 등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기존의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면서 개방정책의 채택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 말레이시아는 IMF의 처방을 비판하면서 국제투자자본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자본통제정책으로 대응하였다. ‘반(反) IMF노선’은 1970년대 이후 도착 말레이제에 대한 건설적 보호를 표방하는 부미뿌뜨라 정책이 말레이제로부터 지지를 받아 UMNO의 기반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고수하기 위한 마하티르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다(이선향, 1999: 4-7).

2. 마하티르의 안와르 구속

마하티르는 1998년 3월 UMNO의 지역책임자 165명을 소집하여 당의 단합과 안와르의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에 대항하여 안와르측은 6월 중순의 UMNO 대회에서 마하티르에 대한 비난공세를 전개하였다(Greg Felker, 1999: 44).

UMNO 당대회에서 「안와르가 수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50가지 이유」라는 정체불명의 책(동성애에서 간첩행위에 이르는 수많은 죄의 열거)이 안와르의 요청에 의한 법원의 배포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에 대해 안와르의 측근들은 안와르에게 마하티르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Newsweek, 99/01/04: 35).

마하티르는 말레이인 우대정책에 대한 외국의 비판과 안와르가 요구하는 개혁을 동일시하며 공격하였다. 당대회가 끝나자 마하티르는 그의 측근이며 전 재

무장관인 다임 자이누딘을 경제행동위원회(NEAC) 의장에 이어 총리실산하 특별직무장관(Minister of Special Functions)으로 임명하여 안와르를 견제하였다. 2주 후에 안와르의 지지자인 우투산 멀라유(Utusan Melayu)와 베리타 하리안(Berita Harian) 신문의 두 편집인이 정부의 압력으로 사임하였다. 경찰은 안와르 측근을 구속하면서 안와르에 대한 조사를 암시하였다. 수세에 몰린 안와르는 마하티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마하티르는 이를 묵살하였다. 결국 9월 2일, 마하티르는 안와르에게 사임을 요구하였고, 안와르가 거절하자 그를 부총리와 재무장관에서 해임하였다.

1998년 9월 3일 경찰은 안와르에 대해 동성애, 부패, 반역, 성적방탕 등의 혐의를 내세워 수사를 개시하였다. 안와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적 공작의 희생자라 주장하였다. 같은 날 UMNO의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안와르를 축출하였고, 9월 6일 안와르의 이복동생인 수쿠마 마두자를 국내안전법(ISA)에 의거하여 구속하였다(FEER, 98/10/15: 20).

이에 대해 안와르는 9월 8일 정치적 개혁운동을 개시하면서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반정부시위를 전개하였다. 안와르가 주장하는 개혁운동은 국내안전법 같은 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적 법률에 의한 엄격한 집행과 질서확립,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의 고도성장 신화가 정실주의와 부패를 낳았고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마하티르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또 개혁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하여 2주간 폐낭, 말라카, 느그리 슴빌란, 조호르 등을 순회하였다.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나와 안와르를 지지하였다.

9월 15일 안와르의 연설문 작성자인 무나와르 아니스가 국내안전법에 의거하여 구속되었다. 9월 19일에는 수쿠마와 무나아르가 법정에 출두하여 안와르와의 동성애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6개월의 징역판결을 받았다. 안와르는 9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3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마하티르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날 밤 자택에서 안와르는 동성애 및 남색, 부패 등의 혐의로 체포당했다. 곧이어 16명의 안와르 지지자와 측근들이 구속되었다. 수감 첫날 안와르가 라함 경찰청장에 의해 구타당했는데 왼쪽 눈이 멍든 채로 법정에 출두하여 마하티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러한 마하티르와 안와르간의 갈등에는 양자의 대조적인 스타일도 기인했는데 마하티르는 카리스마적이고 매우 공격적이며 독단적인데 비해, 안와르는 매우 신중하고 합의를 중시하고 새로운 아시아 지도자의 선구자로 부각되기를 원했다.

3. 안와르 구속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

안와르의 구속과 구타사건은 서방세계를 경악시켰다. 영국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안와르를 양심수로 규정하였다. 미국, 영국, EU, 개인적으로 친구관계인 인도네시아의 하비비 대통령과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도 안와르 구속을 비난하였다(*EIU Country Report 2nd quater*, 1999: 14).

9월 21일 수천의 안와르 지지자들이 구속에 항의하여 법원 밖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진압하였고, 1백 명 이상의 시위참가자를 체포하였다. 9월 27일 안와르가 구속되기 직전에 제작한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었다. 안와르는 마하티르를 권력과 돈에 굶주렸다고 비난하면서 마하티르 아들이 소유한 해운회사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였고, 5억 달러 이상의 UMNO자금을 고위지도자들이 착복하여 스위스의 은행에 거액을 예치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마하티르는 이를 부인하였다(*Newsweek*, 98/10/05: 25).

9월 29일 안와르는 쿠알라룸푸르 지방법원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왼쪽 눈의 명든 자국을 보이며 자신이 구타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안와르는 옥중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질문에 대해 “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오히려 증가했고 개혁운동으로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라힘의 나에 대한 구타는 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마하티르가 관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마하티르는 9월 30일 “부상은 안와르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와르를 해임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FEER*, 98/11/19: 19).

한편 안와르의 변호인들은 동성에 혐의는 터무니없는 날조사실이라 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모하르 압둘라 법무장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측 검사들은 안와르에 대한 4가지 혐의내용을 입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반면, 9명의 안와르측 변호인은 이를 방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수중에 있는 언론매체들은 안와르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와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였다(*FEER*, 98/11/19: 18). 1998년 10월 17일, 1만 명의 시민들이 안와르의 석방과 마하티르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133명을 연행하였는데, 그들 중 35명은 경찰의 구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안와르 구속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참가학생들을 대학에서 퇴학시켰다. 또 100여명의 공무원과 30명의 UMNO당원들이 추방되었다(*FEER*, 98/10/29: 2).

1999년에 들어와 2월 27일 천명 이상의 말라야 대학 학생들이 안와르의 지지자인 찬드라 무자파 교수의 해직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개하였다. 4월 14일 안와르는 부패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1999년 4월 4일 안와르의 부인 완 아지자가 마하티르 정권타도와 정권교체

실현을 내걸고 신당인 국민정의당을 창당하여 당수에 취임하였다. 여기에는 UMNO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었다⁹⁾(*FEER*, 99/04/15: 16). 그러나 아지자 여사는 정치경험이 없고, 안와르 추종자들이 투옥된 상태에서 매우 힘겹게 투쟁을 전개하였다(*FEER*, 98/10/01: 18). 집권세력은 아지자의 홍콩과 필리핀 방문을 비애국적 행위로 규탄하였다. 또 아지자가 중국계로 진정한 말레이인의 영혼을 가지지 않았고,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에서 교육을 받아 말레이계 국민을 지도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여기에 대해 아지자는 “자신의 조부가 중국계 후손이었지만 자신은 말레이계와 이슬람 종교 하에서 성장하였다”고 반박하였다(*Asiaweek*, 99/06/04: 22).

마하티르는 UMNO, 검찰, 경찰, 행정관료, 군대, 경제계 등에 대한 확고한 권력장악을 바탕으로 안와르 세력의 제거작업에 나섰다(*FEER*, 98/10/29: 14). 먼저 시위주동자들을 구속시켜 반정부집회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또 안와르를 법적으로 혐의를 입증시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도록 시도하였다. 1998년 11월 30일 안와르의 변호인인 자카리아 변호사가 재판을 주재중인 판사의 명령으로 법정모독죄로 3개월 구속을 당했다. 경찰은 안와르 구속 후 형성된 개혁그룹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연대(PCD)의장인 티안 추아를 선동범으로 재구속하였다. 이들 조치는 개혁그룹의 지도자들을 구속함으로써 산발적인 반정부시위를 막으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었다(*FEER*, 98/12/10: 20). 1999년 1월 16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 판사는 안와르의 보석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검찰은 안와르에 대한 동성애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언과 비디오테이프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였다(*Asiaweek*, 99/01/29: 30).

이러한 강력한 대응으로 1999년에 들어와 반정부시위가 사라지며 안와르 정국이 시들해졌다. 안와르가 1998년 9월 구속될 때에는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란 찬사를 들었으나 1999년부터는 그도 잘한 것은 아니다, 라는 비판적 여론이 대두되었다.

IV. 총선 승리와 마하티르의 건재

1. 마하티르의 권력강화

마하티르는 안와르 구속 후 일련의 신속한 조치들과 개각 등으로 정부와

9) 1990년 발족했다가 휴면상태인 이슬람사회공동당의 법통을 계승해 당명만 개칭했는데 이는 새로운 정당 등록 신청 시 인가를 얻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옥중에 있는 안와르도 “뿌리깊은 부패와 연고주의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위기를 맞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철저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UMNO 내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1998년 12월 13일 UMNO의 특별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최고회의에서 당의 전당대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당규를 변경하였다.

1999년 1월 8일 소집된 최고회의에서 1999년 6월에 개최될 전당대회를 연기하도록 허용해서 마하티르에게 당문제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권한행사를 연장시켰다(*Asiaweek*, 99/01/22: 16). 1998년 9월 안와르 해임 후 처음 개최된 1999년 6월 중순의 당전당대회의 개막연설에서 마하티르는 안와르를 국제적인 주구로 공격하였다.

새 부총리에는 UMNO의 기대에 맞게 압둘라 바다위 외무장관을 임명하였고, UMNO의 전당대회를 연기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작전을 구사하였다.¹⁰⁾ 이러한 인사개편으로 마하티르는 정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또 새 부총리의 임명으로 돌발사태 발생 시 순조로운 후계이양을 촉진하고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FEER*, 99/01/21: 17).

한편, 안와르 구속에 대해 적지 않은 말레이계 국민들은 마하티르에 비판적이었으나 오히려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중국계 국민들은 마하티르를 변호하였다. 특히 중국계 경제인들은 경제를 안정시킨 마하티르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재무장관이었던 안와르의 고금리정책을 비판하면서 마하티르의 고정환율제를 지지하였다. 이들은 안와르의 개혁과 연고주의 청산 요구에 회의적이었는데, 안와르 지지시위가 이슬람 열풍을 가져와 인도네시아처럼 중국계에 대한 폭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오직 마하티르만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다. 마하티르도 1998년 10월 28일 중국계 신문사 간부들을 초청해 안와르 구속과 개혁운동의 보도에 대한 자세를 요청하면서 UMNO를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 의한 종족간 화합이 불가능하다고 설득하였다. 특히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부상을 강조하여 자신이외는 대안이 없음을 은근히 부각시켰다.

1998년 10월 24일 처음으로 투석전 등 폭력시위가 전개되자 그전까지 개혁파에 동정적인 중국계 주민들도 크게 우려하면서 마하티르 지지로 선회하였다. UMNO는 이러한 중국계의 불안심리를 적극 이용하였다. 반면, 중국계 야당인 DAP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정치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였으나 당총재인 림깃샹이 이슬람정당인 PAS와 협력하자 내부적으로 탈당사태가 일어났고, 반대파간의 알력이 존재하였다. 반면 인구의 8%를 점유하는 인도계는 분열되었고, 중국계에 비해 고소득층이 훨씬 적은 대다수의 인도계는 마하티

10) 새 총리에 임명된 압둘라 바다위는 전임 안와르가 51세의 젊은 나이에 다이내믹한 정치적 조직자인데 비해 59세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관료출신으로 비정치적 인물이다. 유능한 관리자로 아직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의 청렴한 이미지가 안와르의 해임으로 요동치는 UMNO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마하티르 밑에서 교육, 국방, 외무장관직을 수행하였고, 합의를 중요시하는 그의 능력은 다음 총선에서 UMNO가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르에 비판적이었다(*FEER*, 98/11/12: 18).

이렇게 UMNO는 야당들의 공세에 대해 진정으로 말레이계 주민을 대표하는 정당은 UMNO뿐이라고 선전하였다. 또 중국계 주민들에 대해서 국민전선(NF)의 붕괴는 경제발전과 인종화합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슬람야당인 PAS의 광신적 종교열기를 부각시켰다.

한편, 경제상황의 개선은 마하티르에게 유리한 입지를 강화시켰다. 16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에 나가있는 자금이 환류되었고, 자본통제는 암시장을 위축시켜 1998년 9월 이후 외환보유고는 60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국민들은 외환위기 책임을 IMF와 국제투기자본의 탓으로 비난하는 마하티르에 동조하면서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마하티르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였다(*FEER*, 99/01/21: 18).

2. 사바주 의회선거와 총선 승리

이러한 마하티르의 효과적인 정책은 성과를 거두었다. 1999년 3월 13일 사바주 의회선거에서 집권 UMNO가 예상을 뒤엎고 48석중 31석을 차지하는 등 승리를 거두었다. 사바주 선거에서 안와르 문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 야당들은 분열의 양상을 노출하였다. 대다수 이슬람 말레이계 주민은 UMNO에 투표하였고, 기독교도들은 야당인 PBS에 표를 던졌다(*FEER*, 99/03/25: 26).

선거승리로 안와르 지지는 약화되었고, 마하티르의 지배력은 강화되었다. 마하티르는 선거를 위해 1998년 12월 이후 이 지역을 4번이나 방문해서 유세활동을 펼쳤고, UMNO는 지역개발에 대해 더 많은 예산배정을 약속하는 등 공약을 남발하였다. 사바주 의회선거의 승리에 고무된 마하티르는 여세를 몰아 2000년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1999년 11월 29일에 앞당겨 총선거를 치른다고 발표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주요신문에는 학생들이 경찰을 구타하고 차량과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모습을 실어 유권자들의 안정심리를 자극하였다. 또 마하티르는 선거용 선물로 감세조치를 내놓고 외환위기 극복, 1999년 5% 경제성장 등의 업적을 친정부매체를 통해 강조하였다. 11월 22일에는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4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유권자의 1/3에 달하는 중국계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마하티르의 제스처였다.

한편, 마하티르는 선거유세에서 조기총선의 배경이 됐던 안와르 전부총리를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이용하는 인물’이라고 공격하였다. 여기에 대해 완 아지자 여사가 이끄는 4개 야당연합은 여당 친위대가 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비난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변화보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야당은 마하티르 집권 18년간 정실과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비판하였다(*FEER*, 99/11/25: 10-11).

1999년 11월 29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마하티르가 이끄는 NF는 총 193석의

의석 중 148석을 석권하였고, 야당연합인 대체전선(AF)는 42석, 기타 무소속과 군소 야당이 3석을 얻었다. 이는 1995년 총선 때의 162석 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목표로 했던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거둬들여 선전하였다. 따라서 18년째 집권 중인 마하티르는 신임투표 성격을 띤 총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5번째로 총리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총선거에서 마하티르가 승리한 것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안정 선호 심리와 마하티르의 노획한 통치술에 기인하였다. 또 여당이 독점하고 있는 돈줄 및 언론과 짧은 선거기간도 여당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당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경제회복인데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가 1999년 상반기에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회복되자 유권자들의 지지가 증가하였다. 또 이슬람원리주의를 내세운 야당을 견제하려는 중국계 국민과 인도계 국민의 표가 여당에 쏠린 것도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¹¹⁾

그러나 11개 주 가운데 이슬람세력의 중심지인 트렝가누(Trengganu)주와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클란탄(Kelantan)주에서 패배하였고, 안와르의 부인인 완아지자가 당선되었다. 또 마하티르의 득표수가 1995년 총선거보다 7000표가 적은 1만 표에 그친 것도 마하티르의 앞날에 장애가 되었다. 그 동안 말레이계 국민의 후견자라고 자부해 온 UMNO의 위상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V. 결 론

1957년 말레이시아의 독립이후 UMNO는 부미뿌트라 정책으로 말레이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막강한 조직과 풍부한 자금, 타 종족 정당들과의 NF체제로 의회의석의 2/3이상을 석권하여 별다른 위기 없이 집권해왔다. 마하티르는 1981년 총리직에 취임 이래 종족화합과 경제발전, 비전의 제시와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업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는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항상 미국, 서방언론, 호주, IMF 등 서방세력을 공격하고 종족갈등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주의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마하티르의 리더십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기업가들에게 인센티브와 투자의욕을 북돋아주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후계를 둘러싼 마찰과 외환위기의 해결책을 놓고 마하티르와 안와르간 대립이 악화되자 결국 마하티르는 1998년 9월 2일 안와르를 부총리에

11) 말레이시아 국민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주민계 국민으로 부미뿌트라(Bumiputra)라고 하는데 말레이인과 다양한 토착 소수종족이 이에 포함된다. 사라왁(Sarawak)의 이반(Iban)족, 사바의 카다잔(Kadazan)족 등 쟁쟁한 소수종족들이 많다. 다른 하나는 비(非)원주민계 국민(Non Bumiputra)으로 주로 중국계와 인도계 국민들을 지칭한다.

서 해임시켰고 9월 20일 구속하였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풍요를 구가 하던 젊은 세대들에게 반감을 조성하여 반정부시위가 전개되었다. 안와르 구속 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말레이시아가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서 일탈해 정통성 에 기반하는 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UMNO의 일당지배에서 벗어나 개방된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하티르와 안와르간의 권력투쟁은 마하티르라는 집권자에 도전한 젊은 정치적 야심을 가진 부하에 대한 보스의 분노였고, 민족주의와 반서방주의를 신봉 하는 지도자와 보편적 가치와 지구촌을 역설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후계자 간 싸움이였다. 그러나 노련하고 물리력을 장악한 마하티르에 의해 안와르가 패배하였다. 마하티르의 안와르에 대한 공격은 안와르의 대중적 인기를 두려워했 다기보다는 총애하던 후계자가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를 이용해 마하티르의 정실주의를 공격하고 국가건설의 성과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온 거대한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했다는 배신감에 대한 분노에 기인하였다.

결국 마하티르는 강경한 대처와 안와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안와르 세력을 위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더욱이 1998년 후반부터 경제회복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그에 대한 비판정서는 약화되었다. 특히 1999년 4월에 실시된 사바 주 선거와 1999년 11월 총선의 선전, 외국인들의 투자증가는 그의 공세가 성공 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반정부시위가 중국계 주민에 대한 종족폭동 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중국계 국민들의 묵시적인 지지, UMNO와 정부내 기반강화, 경제회복세로 정치위기와 외환위기를 극복한 마하티르의 리더십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성 자체가 매우 순응적이 고 시위나 반항의 전통이 없다. 안와르 이슈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으며 안와르 는 현재 감옥에서 직권남용과 남색혐의로 계속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위 민중혁명이 조만간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민 심도 안정되었다. 마하티르는 총선 승리와 국민지지로 당분간 별다른 도전 없이 자신의 정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¹²⁾

12) 말레이시아의 관영 버르나마 통신은 1999년 6월 2일 마하티르 총리가 “한번 더 임기를 채울 수도 있으며 그 이후로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리관유처럼 선임장관직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노인처럼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 참 고 문 헌 ◆

- 고우성 외. 1995. 『동남아의 정치경제』. 21세기한국연구재단.
- 김성주 외. 1994. 『동남아의 정치변동』. 21세기한국연구재단.
- _____. 1996. 『동남아의 정치리더십』. 21세기한국연구재단.
- 김학준. 1983.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정부」. 『동남아정치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 『말레이시아 편람』. 대외정책연구원.
- 동남아정치연구회(편역). 1992. 『동남아 정치와 사회』.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정태. 1998. 『아시아경제위기 1997-1998』. 서울: 부키.
- 양승윤. 1998. 「안와르의 시대가 달려오고 있다」. 『한국동남아학회보』. 27호.
한국동남아학회.
- 유석춘. 1996. 「말레이시아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남아시아연구』.
제4호. 한국동남아학회.
- 이선향. 1999.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정치학회.
- 정영국. 1995. 「말레이시아의 협의민주주의와 UMNO정치: 마하티르수상의
패권정치」. 『한국정치학회 1995년 10월 월례발표회』.
- 클라크 네어(저). 동남아지역연구회(역). 1994. 『현대 동남아의 이해』.
서울: 서울프레스.
- 한국은행 조사부. 1993. 「말레이시아의 최근 경제동향과 외국인투자환경」.
『한은조사월보』. 10월.
- 홍석준. 1999. 「경제위기에 대한 문화적 대응: 말레이시아의 사례」. 『한국문
화인류학』. 33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Chin, James. 1997. "Malaysia in 1996." *Asian Survey*, February.
- _____. 1998. "Malaysia in 1997." *Asian Survey*. February.
- EIU Country Profile 1998-99 Malaysia*.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1998.
- EIU Country Report*. 3rd quarter 1997-1st quarter. 1999.
- Feldstein, Martin. 1998.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March /April.
- Felker, Greg. 1999. "Malaysia in 1998." *Asian Survey*. January/February.
- Hale, David D. 1998. "The IMF, Now More than Ever."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8.
- Hassan, Mohamed. 1996. "Malaysia in 1995." *Asian Survey*. February.
- Mahathir, Mohamad. 1999. *A New Deal for Asia*. Tokyo. Tachibana
Publishing Inc. 최우석(역). 1998. 「들어라 양키들아」. 『월간조선』. 8월.

Radelet, Steven, & Sachs, Jeffrey. 1997. "Asia's Reemergenc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Yergin, Daniel, Eklof, Dennis & Edwards, Jefferson. 1998. "Fueling Asia's Recovery." *Foreign Affairs*. March/April.

Asiaweek

Economis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Korea Herald

Newsweek

TIME

A Study on the Leadership of the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hir Mohamad's Overcoming of Political Conflict

Hwang-Soo Chun

Senior Researcher, ETRI

Independent since 1957, Mahathir's coalition government of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UMNO) successfully put together a viable union of National Front through a strong network of party organization, funding and through generating an overwhelming support of the Malaysian populace by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policy of "Bumiputra."

The first inauguration of the Prime Minister goes back to 1981, and he has since wield a high level of popular support due to his pragmatic leadership in various issues, such as his policy on racial reconcili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restoring self-dignity to the Malaysian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Mahathir and his Vice Prime Minister Anwar Ibrahim began to deteriorate rapidly especially after the coincidental events of foreign policy crisis and intra-party strife. Subsequently, Mahathir forced to the resignation of Anwar, which led to his eventual downfall and arrest.

Restoring to various tactics of suppressing his opposition and defaming the personal integrity of his chief political rivals, Mahathir by and large succeeded in undermining the popular support of Anwar. In addition, an unforeseen economic recovery which took place in the latter part of 1998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cquiescing any political opposition. Furthermore, a triumphant win in the national election and the concurrent increase in the foreign investment were clear indicators of the efficacy of his regime.

In conclusion, the consolidation of UMNO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government organ, and the subsequent economic recovery have, in all likelihood, sealed a prolonged rule by the Prime Minister Mahathir, without him having to relinquish power.

전황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정보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 Tel: (042)860-6540. Fax: (042)860-6504.
E-mail: chun21@etri.re.kr